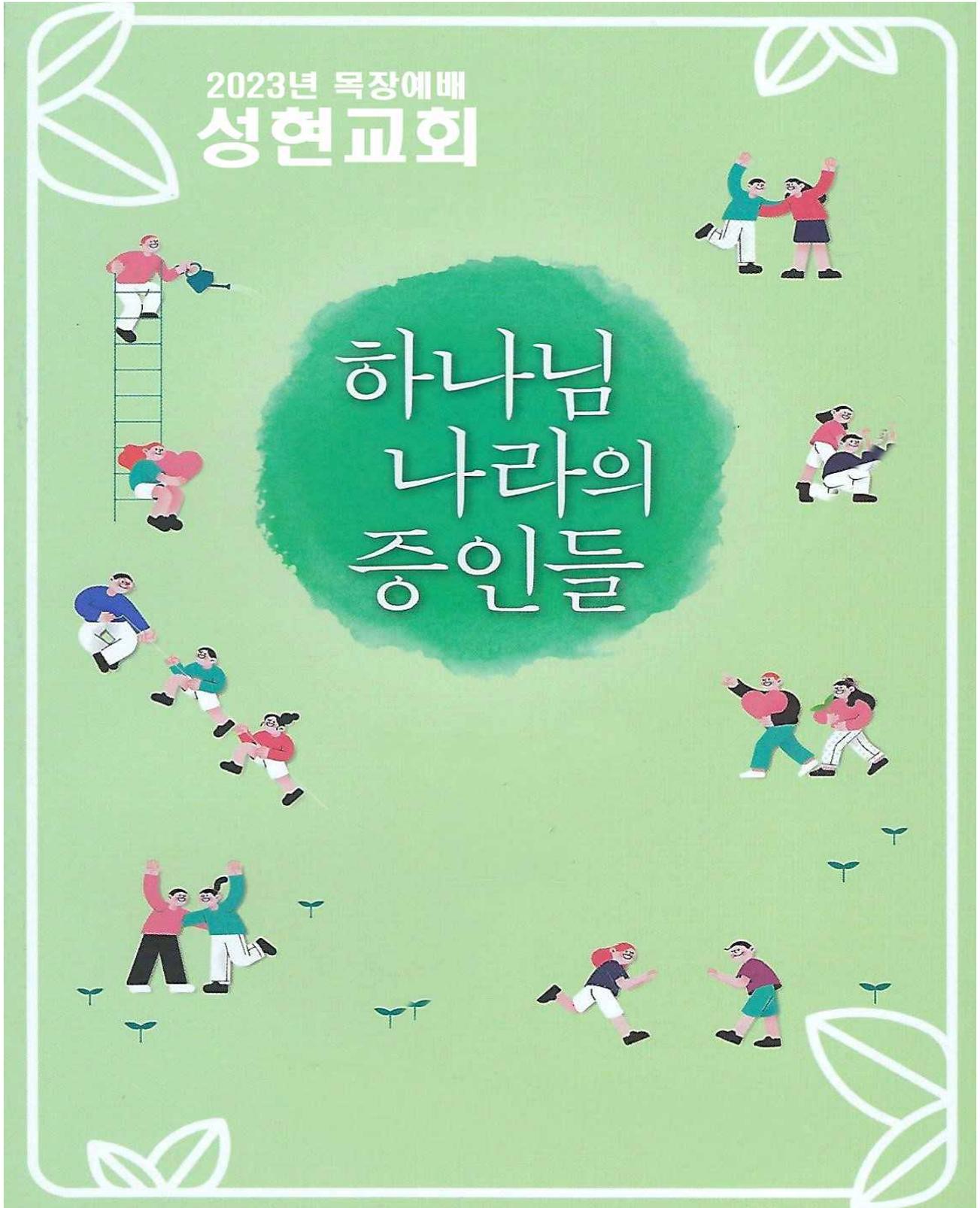


2023년 12월 24일 51주간

제23-51호
목장성경공부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02 2613-2080 . 2683-2080 FAX 02 268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
|------|---|
| 성탄절 | 큰 기쁨의 좋은 소식 |
| 성경말씀 | 누가복음 2장 8~14절(신약p.89) |
| 암송구절 | 누가복음 2장 10절(신약p.89) |
| 찬송 | 찬송가 115(통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4(통114)장 그 어린 주 예수 |

본문 이해

고3 수험생에게는 합격통지서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불치병 환자에게는 완치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을 통해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언했습니다(미5:2).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동네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목자들이 그 소식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합니다. 그리고 먼 타국의 동방박사들이 그 소식을 들으려고 아기 예수의 탄생 현장을 찾아옵니다.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구원의 소리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널리 전해야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1. 그 밤에 주의 영광이 비칠 때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누가복음 2장 9~10절

-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보충설명

사람들은 자연의 경이로움이나 예기치 못한 일,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순간에도 두려워합니다. 이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요8:34)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증상(골1:21)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인해 멈춰있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2. “강보에 누인 아기가 구세주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2절

-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미가 5장 2절

-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말합니다.

보충설명

미가서를 보면 구세주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으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표적이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고 이제 실현되었음에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관심이 없고 자신이 사는 현재에 더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과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사9:1~7)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진리와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3. “자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 14절 자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평화가 됩니다.

보충설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허시는(엡2:12) 예수의 탄생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 모습도 영광스러운 광경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평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의 탄생이 하늘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롬12:18).

묵상 이야기

[파인애플 스토리]는 인도네시아령 뉴기니에서 선교사역 중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선교사가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원주민들이 마음대로 따다 먹고 훔쳐 갑니다. 보다 못한 선교사가 가르치기도 하고 야단도 치면서 못 가져가게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원주민들에게 마음껏 먹도록 허용했을 때 그제야 마음이 열린 마을 사람들에게 비로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조차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주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됩니다.

나눔

- 예수님이 나에게서 어떤 분이신지 나누어 봅시다.

기도

- 예수님으로 인해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적용

- 작은 성탄 성물과 축하카드를 준비하여 이웃에게 전함시다.